

『고성군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 제기』 1면에서 이어짐

# 강원도 “환영·적극지원하겠다” 고성군 “예산문제 등 종합 검토”

그런데 정부가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루지 등 비인기 동계 스포츠 종목의 실업팀 창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단 후 3년간 매년 1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3년간 운영비는 매년 5천만원 가량만 있으면 된다.

또 평창올림픽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강원도에서도 내년부터 세부적인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고, 실업팀 창단과 함께 지역에 바이애슬론 협회가 설립될 경우 독지가 등의 후원도 기대돼 향후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성윤 고성중고 스키지도자(강원도 소속)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7년 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 고성 선수들이 한국 바이애슬론의 기적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 및 주민들이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고성군에 바이애슬론 실업팀이 창단되는 것에 대해 강원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15일 전화통화에서 “도내에 총 43개의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바이애슬론팀은 없으며, 정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고성군 밖에 없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도내에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내년이면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14일 건의서를 접수받았으며, 앞으로 예산 문제와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인지 등 세부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며 “팀 창단이 어려울 경우 고성중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는 없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중고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활주 연습 모습.

## □인터뷰 / 천강훈 고성중고 스키트레이너

# “지역 연고·기량면에서 반드시 성공”

“바이애슬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동안 보디빌딩이나 사이클 등 고성군 실업팀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지역 연고가 없고 실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애슬론은 우리가 국내 최고이기 때문에 팀이 창단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보답할 수 있습니다.”

고성중(42회)고(41회) 출신으로 바이애슬론 국가대표로 활동하다 지난해 4월 고향으로 돌아와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는 천강훈 고성중고 스키트레이너는 “한국 바이애슬론의 한 획을 그은 고성 출신 선수들이 그 전통을 이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고교 재학시절 이미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그동안 월드컵에만 3회 출전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보인 그는 “실업팀이 생기면 보통 외지에서 선수를 영입하지만, 바이애슬론은 100% 고성 출신 선수들로 구성할 수 있다”며 “현재 타 지역에서 뛰고 있는 고성 출신 선수들



도 고향에 실업팀이 생기면 언제든지 돌아오겠다고 할 정도로 열의가 대단하다”고 했다.

천강훈 스키트레이너는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지금 실업팀을 창단하지 못한다면 고성군은 더 이상 ‘스키의 메카’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행정과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알프스 스키장이 폐장된 상황이지만 바이애슬론의 경우 알파인과 달리 지역에 스키장이 없어도 체력훈련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용평에서 틸름이 전지훈련을 하면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강훈 스키트레이너는 “고성중고 후배 선수들과 운동을 하면서 틸름이 지역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춘 꿈나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역 어르신들이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바이애슬론(biathlon)이란

바이애슬론은 ‘달’을 뜻하는 ‘바이(bi)’와 ‘운동경기’를 뜻하는 ‘애슬론(athlon)’의 합성어로 서로 다른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경기다.

18세기 후반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경 지대에서 양국의 수비대

가 스키와 사격을 겨룬 것을 시작으로 군인들 사이에서 널리 행하여지다가 점차 스포츠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1958년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렸으며, 동계올림픽에서는 1960년 미국 스퀴밸리에서 열린 제8회 대회부터 남자 경기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여자

경기는 1992년 알베르빌에서 열린 제16회 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세부종목으로 스프린트, 추적경기, 집단출발, 릴레이 등 4개 종목이 있다. 선수들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철인3종 선수들과 비슷한 만능스포츠맨으로 평가받는다.

## 제29회 고성군민의날 및 수성문화제 9월 22~24일, 고성종합운동장 일원 주민과 함께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 수산의 푸른미래 창조



고성군을 키우는 힘  
고성군수협이 앞장서겠습니다

고성군수협 조합장 최영희

### 서민금융의 대표 주자



고성군의 미래를 밝히는  
신협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고성신협 이사장 전연표